

우리나라 개원 치과의사들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정성화, 정재균, 권호근¹, 송근배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¹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색인 : 개원 치과의사, 세부요인, 직무만족도

1. 서 론

전문직이란 일반적인 직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 독특한 직업조직, 직업윤리, 직업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 봉사지향적인 직업으로 일반직업들에 비해 고도의 직업적 자율성을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직업이다". 치과의사란 직업 역시 전통적으로 집단 특유의 직업의식을 발전시켜 왔고 의사, 변호사 등의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전문직들과 함께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다른 전문직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직업기준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전문직 중에서 대표적인 의사들은 의료의 사회적 중요성과 의료직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강하고 그에 걸맞는 높은 사

회적인 보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의 의료체계 하에서는 의사들의 이러한 기대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치과의사들에 대한 전문직업 인식 등에 관하여 보고된 자료가 없어서 타 전문직업들과 비교할 수는 없으나 치과의사의 양적인 팽창, 국가통제에 의한 저수가 정책,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의 욕구변화 등과 같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열악한 개원환경에 놓여있는 치과의사들 역시 전문직업성과 함께 사회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 직업인을 대상으로 한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 중에서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직무만족 및 불만족의 요인을 조사한 연구로는 Eccles와 Powell"이 영국 남부 웨일즈 지방의 개원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와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등을 조

사하여 60%의 치과의사가 그들의 직업에 만족하는 반면 10%는 치과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Page와 Slack⁵⁾은 런던지역 개원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6%는 다시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치과의사를 하겠다고 대답한 반면, 19%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Howard 등⁶⁾은 캐나다 개원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치과의사란 직업과 개인적인 생활과의 관계나 현재 개원 위치에서의 개원 년수 등이 직업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예견 요인이라 하였으며, Murray⁷⁾는 두 종류의 다른 문화권 내 개원치과의사들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켄터키주에서는 개원 년수가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유타주에서는 젊은 치과의사들이 켄터키주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Schwartz와 Murray⁸⁾는 다시 이전의 유타주의 조사를 재조사하여 낮은 진료수입이 불만족 요인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Shugars 등⁹⁾은 558명의 캘리포니아 개원 치과의사를 상대로 54개 문항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여 1990년대 이전 연구에서는 미국 내 치과의사들의 상당수(60~75%)가 그들의 직업에 대해 만족하였으나 점차 불만족 요소가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Gerbert 등¹⁰⁾은 미국 내 2,081명의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0% 정도만이 또다시 치과의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겠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Anderson¹¹⁾은 미국 내 1,258명의 치과의사들을 조사하여 1990년대 초반 이후 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불만족 요인들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Adelson¹²⁾과 Davidove¹³⁾, Bouyrassa 등¹⁴⁾과 Douglas 등¹⁵⁾은 현대의 치과는 주변환경이나 사회전반의 영향으로 인하여 치과의사들에게서 스트레스 요인이 상당부분 현존하고 있어서 불만과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혼자 간과하지 말고 치과의사와 치과계의 또 다른 긍정적

인 면을 바라보면서 주관적이고 개인별로 특이한 사항들을 제거해야 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김¹⁶⁾의 직무만족의 실증적 고찰에서 비롯되어 1970년대 중반부터 각종 직업분야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져 왔으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정과 송¹⁷⁾이 563명의 대구광역시 개원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연구가 유일할 뿐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IMF 구제금융사태와 의약분업 사태를 거치면서 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급격한 인식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개원 치과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한 치과의사들의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를 평가하여 개원 치과의사들이 자신의 직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또한 치과의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인가를 분석함으로써 변화과정에 놓여있는 한국사회에서 전문직으로써의 치과의사란 직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조사 대상 및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1999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명부¹⁸⁾에 등록된 10,357명의 개원 치과의사중 1,029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의 선정에서 각 지역별 개원의 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편의를 줄이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각 도 등의 광역단체들을 층으로 고려한 후 그 층 내에서 표본의 크기가 각각 10% 정도 되도록 층화계통추출을 시행하였다. 각 광역단체별 개원치과의사 수 및 표본추출 수는 표 1과 같다.

우편조사를 이용하여 2000년 4월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1,029명의 치과의사들에게 1차 설문지를 우

표 1. 연구대상 및 표본의 지역별 분포

지역	개원의수	표본수	지역	개원의수	표본수
서울특별시	3,198	319	강원도	261	26
부산광역시	930	93	충청북도	206	20
대구광역시	640	64	충청남도	268	26
인천광역시	448	44	경상북도	441	44
대전광역시	320	32	경상남도	550	55
광주광역시	356	35	전라북도	365	36
울산광역시	198	19	전라남도	317	31
경기도	1,740	174	제주도	119	11
			계	10,375	1,029

표 2. 응답군과 무응답군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개원 특성 비교

특성	응답군 (n=615)	무응답군 (n=374)	p-값
성별	남자	504 (82.0)	0.874
	여자	111 (18.0)	
연령	35세 이하	124 (20.2)	0.765
	36 ~ 45세	346 (56.2)	
	46 ~ 55세	99 (16.1)	
	56세 이상	46 (7.5)	
학력	치의학사	324 (52.7)	0.785
	치의학석사	109 (17.7)	
	치의학박사	182 (29.6)	
수련유무	일반의	397 (64.5)	0.109
	전공의	218 (35.5)	
개원기간	5년 이하	151 (24.6)	0.975
	6 ~ 10년	198 (32.2)	
	11 ~ 15년	144 (23.4)	
	16년 이상	122 (19.8)	

p-값은 χ^2 -검정에 의해 계산되었음

송한 후, 2개월 후인 2000년 6월에 그 때까지 설문
에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다시 2차 설문지를
우송하여 8월 31일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처
음 발송한 1,029명의 대상자들 중 37명은 병원이전
등의 이유로 인한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 2
차례에 걸친 우편조사로 설문지가 우송된 992명 중
618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응답자료에 많은 결
측치를 포함한 3명의 자료를 제외시킨 총 61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현편 설문에 응하지 아니한 무응답자들에 의한 결
과의 편의(bias)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
에 응하지 않은 374명의 조사대상자들에 대해서 각 시
도별 치과의사협회의 도움을 얻어 그들의 인구 통계

적 특성 및 개원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수련유무
및 개원기간을 조사하여 각 특성에 따른 응답군과
무응답군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표 2에 나타내
었다. 설문에 응한 대상자 615명과 설문에 응하지
않은 374명의 인구 통계적 특성 및 개원 특성에 따
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 조사된 모든 특성에 따른 응
답군과 비응답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2.2. 설문도구

본 연구에서는 Shugars 등¹⁹⁾에 의해 개발된 치과
의사 직무만족 조사(Dentist Satisfaction Survey;
DSS) 설문모형(12개 요인, 54개 문항)을 이용하여

표 3. 설문도구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문항 내용	요인 행렬							Cronbach's alpha
	I	II	III	IV	V	VI	VII	
5. 직업에 대한 만족	0.80	0.15	0.06	0.12	0.08	0.11	0.09	0.88
17. 직업에 대한 만족	0.77	0.12	0.13	0.06	0.15	0.18	0.09	
12.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0.75	0.13	0.03	0.07	-0.05	-0.03	0.08	
9. 직업에 대한 만족	0.73	0.25	0.10	0.06	0.13	0.07	0.08	
14.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0.73	0.06	-0.01	0.04	0.07	0.18	0.20	
6. 직업에 대한 회의	0.67	0.06	0.03	0.09	0.04	0.18	0.06	
20. 치과의사로서의 위치	0.61	0.26	0.20	0.05	0.18	0.04	0.00	
25. 수입에 대한 만족	0.18	0.83	0.02	-0.00	0.11	0.14	0.14	0.90
10. 수입	0.13	0.82	-0.07	0.01	0.11	0.18	0.11	
23. 수입	0.05	0.81	-0.08	0.02	0.10	0.20	0.17	
2. 풍족한 생활	0.21	0.78	0.02	0.05	0.05	-0.03	0.01	0.87
21. 수입에 대한 만족	0.31	0.78	0.07	0.07	0.12	-0.02	0.03	
15. 여가활동 시간	0.14	-0.03	0.88	0.18	0.02	0.05	0.03	
7. 개인적인 시간	0.17	-0.03	0.84	0.18	0.05	-0.02	0.05	
29. 여가활동 시간	0.03	0.01	0.80	0.27	0.05	0.08	0.06	0.74
26. 치료에 대한 토론 시간	0.09	0.08	0.02	0.78	-0.01	0.12	0.08	
22. 임상에 대한 토의시간	0.11	-0.00	0.27	0.74	0.05	-0.08	0.11	
1. 새로운 술식 연구 시간	0.04	0.04	0.14	0.71	0.06	0.18	-0.00	
4. 기술 향상을 위한 시간	0.15	-0.01	0.32	0.61	0.07	0.04	0.10	
8. 진료보조원의 자질	0.10	0.11	-0.03	0.08	0.85	0.04	0.05	0.82
18. 진료보조원의 능력	0.17	0.16	0.06	0.05	0.85	-0.01	0.12	
19. 진료보조원과의 협력	0.12	0.14	0.12	0.02	0.76	0.24	0.10	0.71
24. 환자에 대한 배려	0.07	0.04	0.00	0.11	0.04	0.71	0.06	
11. 환자와의 관계	0.11	0.25	-0.16	0.01	0.07	0.64	0.24	
27. 환자와의 관계	0.33	0.07	-0.11	0.13	0.13	0.63	0.19	0.71
16. 환자와의 교류	0.39	0.15	0.13	0.09	0.09	0.57	0.20	
3. 치과적 문제 해결능력	0.14	0.14	0.11	0.04	0.05	0.09	0.75	0.71
28. 치료내용에 대한 만족	0.19	0.07	0.05	0.09	0.09	0.21	0.75	
13. 양질의 치료 제공	0.11	0.14	-0.02	0.13	0.12	0.17	0.73	
고유값	7.85	3.25	2.11	1.88	1.69	1.24	1.04	
설명력 (%)	27.1	11.2	7.3	6.5	5.8	4.3	3.6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변형한 7개 요인 29개 문항으로 치과의사들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직업에 대한 여러 항목들과 각 개인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개인 특성들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7개의 요인들은 다른 치과인력과의 관계, 소득, 진료활동과 연관된 시간, 진료내용, 환자와의 관계, 개인적인 여가시간 및 일반적인 만족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원의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 및 개인 특성으로는 성별, 나이, 학력, 수련유무, 개원기간, 주당근무시간 및 치과보조원 수를 조사하였다. 설문문항은 각

항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5점 리커드 척도(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를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이미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들을 사용하였으나, 내용의 구성 및 항목 수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변형하였고, 또한 적용된 모집단이 다른 관계로 요인분석과 Cronbach의 신뢰도 계수를 이용하여 설문지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였다(표 3). 먼저 직무만족도라는 개념을 측정하는 29개의 문항을 다른 치

과인력과의 관계, 소득, 진료활동과 연관된 시간, 진료내용, 환자와의 관계, 개인적인 여가시간 및 일반적인 만족도라는 7개의 하위개념들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 후 최종 회수된 615명의 응답자료를 이용하여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을 주성분분석과 직교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치과의사들의 직무만족도를 측정된 29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I은 일반적인 만족도, 요인 II는 소득에 대한 만족도, 요인 III은 개인적인 여가시간에 대한 만족도, 요인 IV는 진료활동과 연관된 시간에 대한 만족도, 요인 V는 다른 치과인력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요인 VI은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요인 VII은 진료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이들 7개 요인에 의해 자료의 65.7%가 설명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도구가 처음에 구상한 범주대로 문항들이 분류되어지고, 모든 요인의 신뢰도 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본 설문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2.3. 통계 분석

응답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하고 입력 오류와 이상치를 검토 수정하였으며, 설문 문항 중 부정적으로 질문된 문항들의 응답을 re-ordering하고, 모든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만족도 점수를 0으로 하고 모든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만족도 점수를 100으로 하기 위하여 5점 척도를 각각 0, 1.25, 2.5, 3.75 및 5로 선형변환하여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후 전체 직무만족도 점수가 0~100점까지 분포되도록 하였으며, 조사된 7개 요인들에 대한 만족도도 각 해당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후 같은 방법으로 0~100점까지 분포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만족도 점수는 SAS 6.12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된 직무만족 관련요인들의 만족분율과 만족점수를 계산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상관계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개인 특성에 따른 전체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t-검정과 일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산분석 결과 군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 Scheffe의 방법을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된 인구 통계적 특성 및 개인 특성과 전체 직무만족도와와의 관계는 수량화법(quantification method)²⁰⁾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량화법은 종속변수가 가지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I, II, III, IV 등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전체 직무만족도가 양적 자료이므로 이 경우에 설명변수의 범주들을 수량화하는 수량화법 I을 적용하였다. 수량화법 I에서는 계수들의 추정치들이 각 설명변수 범주들의 수량화 값을 의미하므로 각 설명변수에서 추정치가 0인 범주를 표준사례로 하여 표준범주와 다른 범주들 간의 추정치의 차이로 범주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으며, 종속변수에 대한 각 설명변수의 기여도는 수량화 범위(range)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범위란 어느 설명변수 내 범주들의 수량화 값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로 이 범위가 큰 설명변수는 수량화에 있어 상대적으로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3. 연구 성적

그림 1은 치과의사들의 직무만족 관련요인들에 대한 만족분율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각 세부요인별 만족도 점수를 바탕으로 불만족(0~36), 보통(37~63) 그리고 만족(64~100)의 3등급으로 분류하였다. 환자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환자와의 관계와 진료내용 그리고 다른 치과인력과의 관계 등의 요인에서는 불만족 분율(각각 0.8%, 6.5%, 18.2%)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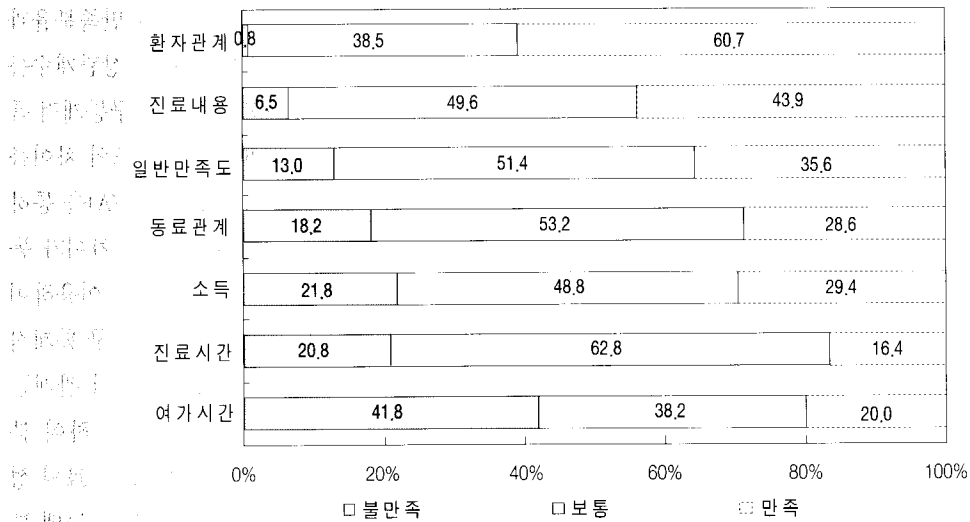


그림 1. 응답자들의 세부 요인별 만족, 보통 및 불만족 비율 분포

표 4. 응답자들의 전체 직무만족도 및 각 세부요인별 만족도의 분포

요인	만족도*	최소점수	최대점수
일반적인 만족도	56.1 ± 17.0	0.0	100.0
소득	52.6 ± 18.0	5.0	100.0
개인적인 여가시간	43.9 ± 21.0	0.0	100.0
진료활동과 관련된 시간	48.3 ± 16.9	0.0	100.0
다른 치과인력과의 관계	53.8 ± 16.9	0.0	100.0
환자와의 관계	68.5 ± 12.3	31.3	100.0
진료내용	60.1 ± 15.9	16.7	100.0
직무만족도	54.7 ± 10.4	25.8	100.0

* 평균 ± 표준편차

다 만족 분율(각각 60.7%, 43.9%, 28.6%)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 요인에서도 만족 분율이 29.4%로 불만족 분율 21.8%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시간과 관계되는 개인적인 여가시간과 진료활동과 관련된 시간 요인에서는 불만족 분율(각각 41.8%, 20.8%)이 만족 분율(각각 20.0%, 16.4%)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한편 일반적인 만족도 요인을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분율이 35.6%로 불만족한다는 분율 13.0%보다 다소 높아 치과의사들이 자기의 직업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로 살펴보면 환자와의 관계(68.5)와 진료내용(60.2) 요인에서

는 다소 높은 만족을 나타내었으며, 일반적인 만족도(56.1), 다른 치과인력과의 관계(53.8) 및 소득(52.6) 요인은 중간 정도의 만족도를 그리고 진료활동과 관련된 시간(48.3)과 개인적인 여가시간(43.8) 요인에서는 다소 불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전체 직무만족도는 54.7(25.8~100점) 정도로 나타났다(표 4).

표 5는 직무만족 관련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대부분의 요인들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만족도는 환자와의 관계($r=0.49$) 및 소득 요인($r=0.42$)과 개인적인 여가시간은 진료활동과 관련된 시간($r=0.47$)과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그

표 5. 직무만족 관련요인간의 상관관계

요 인	1	2	3	4	5	6	7
1. 일반적인 만족도	-						
2. 소득	0.42*	-					
3. 개인적인 여가시간	0.25*	0.02	-				
4. 진료활동과 관련된 시간	0.27*	0.12*	0.47*	-			
5. 다른 치과인력과 관계	0.31*	0.31*	0.14*	0.17*	-		
6. 환자와의 관계	0.49*	0.37*	0.18*	0.28*	0.30*	-	
7. 진료내용	0.36*	0.32*	0.17*	0.26*	0.28*	0.50*	-

* p < 0,01

표 6. 인구통계적 특성 및 개원 특성에 따른 전체 직무만족도 비교

특 성	직무만족도*	p-값
성 별	남 자 (n=504) 55.3 ± 10.4 여 자 (n=111) 52.3 ± 10.1	0,0067
연 령	35세 이하 (n=124) 52.8 ± 9.8 ^A 36 ~ 45세 (n=346) 54.6 ± 10.0 ^{AB} 46 ~ 55세 (n=99) 57.3 ± 11.9 ^B 56세 이상 (n=46) 55.2 ± 10.6 ^{AB}	0,0170
학 령	치의학사 (n=324) 52.8 ± 9.8 ^A 치의학석사 (n=109) 55.1 ± 9.3 ^{AB} 치의학박사 (n=182) 58.0 ± 11.2 ^B	0,0001
수련유무	일반의 (n=397) 53.0 ± 9.8 전공의 (n=218) 58.0 ± 10.7	0,0001
개원기간	5년 이하 (n=151) 53.8 ± 10.2 6 ~ 10년 (n=198) 54.0 ± 10.0 11 ~ 15년 (n=144) 55.4 ± 10.5 16년 이상 (n=122) 56.4 ± 11.0	0,1120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이하 (n=102) 60.0 ± 11.4 ^A 41 ~ 50시간 (n=411) 53.9 ± 9.9 ^B 51시간 이상 (n=102) 52.8 ± 9.8 ^B	0,0001
치과보조원 수	2명 이하 (n=382) 53.1 ± 9.8 ^A 3 ~ 5명 (n=212) 56.4 ± 10.6 ^B 6명 이상 (n=21) 63.5 ± 10.0 ^C	0,0001

* 평균±표준편차

p-값은 t-검정 또는 일변량분산분석법(one-way ANOVA)에 의해 계산되었음

A,B,C 사후검정에 의한 군 분류 변수, 같은 문자일 경우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없음(p > 0,05)

리고 환자와의 관계는 진료내용(r=0.50)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은 치과의사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개원 특성에 따른 전체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인구통계적 특성들 중 성별의 경우 남자 치과의사들의 평균 만족도가 55.3점으로 여자들의 52.3점보다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067), 연령

에 따른 비교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만족도도 조금씩 증가되다가 56세 이상인 군에선 다시 약간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어 35세 이하인 군과 46~55세인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170),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어 학부만 졸업하고 개원한 치과의사 군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치과의사 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표 7. 직무만족도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수량화 범위

특 성	추 정 치	수량화 범위	p-값
성 별		2.35	0.0321
남 자 (n=504)	2.35		
여 자 (n=111)	0.00		
연 령		3.23	0.6163
35세 이하 (n=124)	3.23		
36 ~ 45세 (n=346)	2.70		
46 ~ 55세 (n=99)	2.13		
56세 이상 (n=46)	0.00		
학 력		0.88	0.7395
치의학사 (n=324)	0.00		
치의학석사 (n=109)	0.29		
치의학박사 (n=182)	0.88		
수련유무		3.46	0.0007
일반의 (n=397)	-3.46		
전공의 (n=218)	0.00		
개원기간		2.99	0.5037
5년 이하 (n=151)	-1.07		
6 ~ 10년 (n=198)	0.00		
11 ~ 15년 (n=144)	-0.32		
16년 이상 (n=122)	1.92		
주당 근무시간		6.72	< 0.0001
40시간 이하 (n=102)	6.72		
41 ~ 50시간 (n=411)	1.37		
51시간 이상 (n=102)	0.00		
치과보조원 수		9.73	< 0.0001
2명 이하 (n=382)	-9.73		
3 ~ 5명 (n=212)	-6.57		
6명 이상 (n=21)	0.00		

었다($P=0.0001$). 또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전공의들의 만족도가 일반의에 비해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1$). 한편 개원 특성에 따른 비교에서는 개원 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며($p=0.1120$),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차이에서는 주당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군의 만족도가 다른 군들에 높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0.0001$), 치과보조원력의 수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01$).

한편 개원의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개원 특성들인 성별, 연령, 학력, 수련유무, 개원기간, 주당 근무시간 및 치과보조원의 수들 중 전체 직무만족도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이 어떤 특성들인지를 수량화법을 통해 분석하였다(표 7). 이 수량화 결과로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설명변수들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데 개원의들 중 56세 이상의 여자이면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을 받은 후 개원하여 6~10년이 지나고 주당 51시간 이상 근무를 하며 치과보조원의 수가 6명 이상인 경우를 표준사례로 하여 다른 경우의 개원의들의 직무만족도를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설명변수들의 수준은 표준사례와 동일하나 성별이 남자인 경우는 표준사례에 비해 평균적으로 2.35점 높은 직무만족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졸업 후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들의 경우는 표준사례에 비해 직무만족도

가 평균적으로 3.46점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원 특성이 표준사례와 다른 경우를 보면 표준사례와 다른 요인들은 동일하나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이하이거나 41~50시간인 경우는 표준사례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각각 평균적으로 6.72점과 1.37점 더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치과보조원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와 3~5명인 경우는 표준사례에 비해 직무만족도가 각각 평균적으로 9.73점과 6.57점 더 낮아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개원의들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기여도를 수량화 범위를 이용하여 평가해 보면 각 설명변수들의 수량화 범위가 성별은 2.35, 연령은 3.23, 학력은 0.88, 수련유무는 3.46, 개원기간은 2.99, 주당 근무시간은 6.72, 치과보조원의 수는 9.37 그리고 개원지역이 2.59로 나타나 수량화 범위가 큰 순서인 치과보조원의 수, 주당 근무시간, 수련유무, 성별 등의 순서로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를 설명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4. 고 안

본 연구에 응답한 개원 치과의사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개원 특성들을 우리나라 전체 개원 치과의사들의 자료와 비교하려 하였으나 아직 우리나라 개원 치과의사들의 성비나 평균 연령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었다. 향후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 이런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한편 조사된 개원 치과의사들의 특성을 정과 송¹⁷⁾이 대구광역시 개원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과 비교해 보면 남자 치과의사의 분율은 82%로 대구광역시의 86%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평균 연령은 41.6세로 대구광역시 개원 치과의사들의 평균 40.6세와 비슷하였고, 박사과정에 재

학 중이거나 졸업한 치과의사의 분율과 전공의의 분율은 각각 30% 및 36%로 대구광역시 조사에서 나타난 34% 및 42% 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당 근무시간과 개원기간은 평균 45.5시간 및 9.9년으로 대구광역시 개원 치과의사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48.5시간 및 평균 개원기간 9.8년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치과 보조 인력의 수도 두 조사에서 각각 2.6명 및 2.2명으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개원 특성들 중 남자 치과의사의 분율, 평균 연령 및 주당 근무시간을 Shugars 등¹⁸⁾과 Wells와 Winter²¹⁾가 각각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켄터키주의 일반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치과의사들 중 남자의 분율은 본 연구의 경우 82%로 켄터키주의 82.7%와는 비슷하였으나, 캘리포니아주의 93%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연령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41.4세, 캘리포니아주 44.4세 그리고 켄터키주는 45.6세로 우리나라 보다 조금 많았으며,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본 연구에서 48.5시간으로 캘리포니아주 34시간, 켄터키주 34.4시간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치과의사들의 직무만족도를 측정된 각 세부요인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치과의사들은 자기의 직업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각 세부요인들에 대한 만족 수준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조사에 응한 치과의사들은 개인적인 여가 시간 및 진료활동과 연관된 시간과 같은 시간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다른 치과 인력과의 관계 및 소득 요인에 대해서도 조금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환자와의 관계, 진료 내용 및 일반적인 만족도 요인에서는 다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hugars 등¹⁹⁾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반 치과의사들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환자와의 관계, 진료 내용 및 명성에서는 만족하였고, 진료 환

경, 소득, 개인적인 여가 시간 및 병원 경영에서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정과 송¹⁷⁾이 대구광역시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환자와의 관계, 진료 내용 및 일반적인 만족도 요인에서는 대체로 만족하였으나, 개인적인 여가 시간이나 소득 요인에서는 상당히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또한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특히 진료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와의 관계나 진료 내용이 직무 만족의 주된 요인으로 분류되어 지는 것으로 볼 때 치과의원을 개원하려는 이들이 이런 부분에 많은 고려를 해야 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본 조사에서 측정된 7개의 직업적인 요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직업적인 요인들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일반적인 만족도는 환자와의 관계 및 소득 요인과 개인적인 여가시간은 진료활동과 관련된 시간과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또한 환자와의 관계는 진료내용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Shugars 등¹⁹⁾의 보고와도 일치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개원 특성에 따른 전체 직무만족도의 비교에 있어서 인구통계적 특성들 중 성별에 따른 차이는 Shugars 등¹⁹⁾의 연구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반치과의사들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가 없다는 보고와는 달리 남자 치과의사들이 여자 치과의사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령별 비교에서는 46~55세 사이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치과대학 졸업 후 수련을 마친 전공의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정과 송¹⁷⁾이 대구광역시 개원 치과의사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Price²²⁾가 미국 내의 여자 치과의사들이 상위 학위과정에 등록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보

고와 이로 인해 남녀 치과의사들 사이에 직무만족도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Shugars 등¹⁹⁾의 결론으로부터 학력이 직무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개원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비교에서는 개원기간이 길수록, 주당 근무시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치과보조원의 수가 많을수록 직무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된 인구통계적 특성 및 개원 특성들이 범주형 자료(categorical data)로 측정이 되어 이들 특성들이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인 개원 치과의사들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특성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직무만족도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들로 구성된 가법모형(additive model)을 고려하여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추정된 계수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분석은 전통적인 일반선형모형(general linear model) 기법이나 수량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수량화 방법을 이용하여 독립변수 내 범주들의 수량화 값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인 수량화 범위를 이용하여 각 특성들인 독립변수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기여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수량화 관점에서는 범위가 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상대적으로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통계분석을 시행한 결과 인구통계적 특성과 개원 특성들 중 직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수련유무, 주당 근무시간 및 치과보조원의 수로 나타났으며 치과보조원의 수, 주당 근무시간 및 수련유무 등 순으로 수량화 범위가 크게 나타나 이런 변수들이 직무만족도에 상대적으로 큰 기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이 조사가 어느 한 시점에서의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단면연구(cross-sectional study)에 의해 결과를 유도함으로써 개념들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대상자들의 만족도 점수를 측정하지 못한 관계로 만족도 점수가 양의 방향으로 편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는 우리나라 개원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업적인 만족 또는 불만족 요인을 조사하여 현재 개원 치과의사들이 자신의 직업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또한 치과의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인가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겠다. 그러나 직무만족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의 기준이 되는 만족 또는 불만족에 대한 구성요인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향후 이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설문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직무 만족 및 불만족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의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DSS 모형을 개량하여 7개 요인 29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고 이 설문도구에 의해 측정된 자료로 치과의사들의 직무만족도와 관련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999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명부에 등록된 전국 10,357명의 개원 치과의사들 중 1,029명을 층화계통추출하여 2000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2차에 걸쳐 우편을 이용한 설문조사와 비용담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수합된 615명의 자료는 SAS 6.12를 이용하여 설문도구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며, 직무만족 관련요인들간의 관계와 조사된 인구 통계적 특성 및 개원 특성에 따른 전체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분

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개원 치과의사들이 느끼는 직업에 대한 만족 정도를 조사된 세부 요인별로 살펴보면 환자와의 관계와 진료내용 요인에서는 다소 높은 만족을 나타내었으며, 일반적인 만족도, 다른 치과인력과 의 관계 및 소득 요인은 중간 정도의 만족을 그리고 진료활동과 관련된 시간과 개인적인 여가시간 요인에서는 다소 불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전체 직무만족도는 평균 54.7점으로 나타났다.
2. 조사된 인구 통계적 특성과 개원 특성에 따른 전체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구 통계적 특성들에서는 남자 치과의사이고, 학력이 높고, 졸업 후 수련을 받은 전공의인 경우에 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개원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는 주당 근무시간이 짧고, 치과 보조원의 수가 많은 경우에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3. 조사된 인구 통계적 특성 및 개원 특성들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특성들 중 성별, 수련유무, 주당 근무시간 및 치과보조원의 수가 직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기여도의 크기를 수량화 범위로 평가한 결과 치과보조원의 수, 주당 근무시간 및 수련유무 등 순으로 나타나 이런 변수들이 직무만족도에 상대적으로 큰 기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개원 치과의사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와의 관계와 진료내용 요인과 같은 만족요인을 더욱 증진시키고, 진료활동과 관련된 시간과 개인적인 여가시간 요인과 같은 불만족 요인을 경감시켜 전체적인 직무만족도를 더욱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참고 문헌

1. 강윤식, 감신, 예민해. 전공의들의 전문직인식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예방의학회지 1997;30(1):209-228.
2. Freidson E. Professional dominance. New York: Atherton Press; 1970:50-75.
3. 조병희. 개업의사들의 전문직업성과 직업만족도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학 1994;28(2):37-64.
4. Eccles JD, Powell M. The health of dentists: A survey in South Wales 1965/66. Br Dent J 1967;123(10):379-387.
5. Page CN, Slack GL. A contented profession?: A survey of old Londoner dentists. Br Dent J 1969;125(9):220-225.
6. Howard JH, Cunningham DA, Rechnitzer PA, Goode RC. Stress in the job and career of a dentists. J Am Dent Assoc 1976;93(9):630-636.
7. Murray BP. Professional role satisfactions of dentists: Some cross-cultural comparisons. J Am Coll Dent 1980;47(4):214-228.
8. Schwartz RH, Murray BP. Factors affecting work satisfaction among dentists in Utah: A secondary analysis. J Am Coll Dent 1981;48(1):47-58.
9. Shugars DA, Dimatteo MR, Hays RD, Cretin S, Johnson JD. Professional satisfaction among California general dentists. J Dent Educ 1990;54(11):661-669.
10. Gerbert B, Bernzueig J, Bleeker T, Bader J, Miyasaki M. How dentists see themselves, their profession, the public. J Am Dent Assoc 1992;123(12):72-78.
11. Anderson PE. Dentists more optimistic in 1995 practice survey. Dent Econ 1995;85(10):34-38.
12. Adelson H. Depression, understanding and controlling it. New York State Dent J 1994;60(3):43-45.
13. Davidove DM. Dentistry, self-esteem and criticism. New York State Dent J 1996;62(4):43-45.
14. Bouyrassa M, Baylard JF. Stress situations in dental practice. J Can Dent Assoc 1994;60(1):65-67.
15. Douglas MK, Meleis AI, Eribes C, Kim S. The work of auxiliary nurses in Mexico: stressors, satisfiers and coping strategies. Int J Nurs Stud 1996;33(5):495-505.
16. 김병문. 직무만족감에 대한 실증적 고찰: 특히 그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9.
17. 정재균, 송근배. 대구광역시 치과의사들의 직무만족도 조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7;21(4):633-648.
18. 대한치과의사협회. 1999년도 회원명부, 1999.
19. Shugars DA, Hays RD, Dimatteo MR, Cretin S.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job satisfaction among dentists. Med care 1991;29(8):728-744.
20. 허명희. 수량화 방법론의 이해. 서울:자유아카데미; 1992: 0.1-1.11.
21. Wells A, Winter PA. Influence of practic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n dental job satisfaction. J Dent Educ 1999;63(11):805-812.
22. Price SS. A profile of woman dentists. J Am Dent Assoc 1990;120(4):403-408.

Abstract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among dentists in Korea

Seong-Hwa Jeong, Jae-Kyun Chung, Ho-Keun Kwon¹, Keun-Bae Song

Dept. of Preventiv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¹*Dept. of Preventive Dentistry and Public Oral Health, College of Dentistry, Yonsei University*

Key words : Dentists, job facet, job satisfaction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job satisfaction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Korean dentists.

Methods : Data were obtained from 1,029 dentists selected according to th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method among the 10,357 registered dentists in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The survey was performed by a mail questionnaire consisting of 29 items and using the 5-point likert

response format. Of the 1,029 dentists selected, 615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e adjusted response rate was 62.2%.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6.12.

Results: The profile of the typical, professionally satisfied dentist was a male specialist dentist, involved in continuing education courses, with shorter working time, and more dental assistants. Among the overall job satisfaction rating and the other six facets, those factors related with high job satisfaction were patient relationship (68.5 ± 12.3) and delivery of care (60.1 ± 15.9), those with medium satisfaction were overall job satisfaction (56.1 ± 17.0), staff (53.8 ± 16.9) and income (52.6 ± 18.0), and those with dissatisfaction were professional time (48.3 ± 16.9) and personal time (43.8 ± 21.0). The mean score of the overall job satisfaction was 54.7 ± 10.4 .

Conclusions: Dentists who practice in Korea appeared to suffer from various kinds of stress and dissatisfaction as indicated by some of the questionnaire items and factors, but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ir job. A plan for improving the general level of job satisfaction among Korean dentists should be developed by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It is further recommended that dentists themselves try to improve their own working circumstances in order to relieve the factors which cause them dissatisfaction.